

TK-제주만 빼고... 전국 '파란색 천지'

제7회 지방선거 유력 광역단체장 프로필

서울특별시

박원순 더불어민주당
단국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졸업
前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
前 희망제작소 상임이사

경기도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
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
前 성남시장
前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

충청남도

양승조 더불어민주당
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졸업 (법학석사)
前 제17, 18, 19, 20대 4선 국회의원
前 20대 국회보건복지위원장

충청북도

최문순 더불어민주당
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졸업 (문학석사)
現 강원도지사
前 제18대 국회의원

대전광역시

박남춘 더불어민주당
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
前 인천 남동구(갑) 국회의원(재선)
前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

부산광역시

오거돈 더불어민주당
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(행정학석사)
前 부산광역시 시장 권한대행
前 해양수산부 장관

경상남도

이철우 자유한국당
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(정치학 석사)
前 경상북도 부지사
前 제18, 19, 20대 3선 국회의원

경상북도

권영진 자유한국당
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 (정치학박사)
現 대구광역시 시장
前 18대 국회의원

전라북도

송하진 더불어민주당
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(행정학 박사)
現 민선6기 전라북도지사
前 민선4, 5기 전주시장

전라남도

김영록 더불어민주당
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맥스웰대학원 졸업(행정학석사)
前 문재인정부 초대 농식품부장관
前 제18대, 19대 국회의원

제주특별자치도

원희룡 무소속
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
現 제주특별자치도지사
前 제16, 17, 18대 국회의원

대구광역시

송철호 더불어민주당
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
現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
前 국민고충처리위원회(장관급)

전라남도

김경수 더불어민주당
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
前 제20대 국회의원
前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

전라남도

이용섭 더불어민주당
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(경제학 박사)
前 문재인정부 일자리위원회 초대 부위원장
前 노무현정부 행정자치부 장관

자료/중앙선거관리위원회

80대부터 대학생까지 투표 열기... 난동·훼손 사건사고도

6.13선거 이모저모

6·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하비에르 국제학교에 마련된 평창동 제3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가족들이 투표 인증샷을 찍고 있다. /연합뉴스

전국 투표소에 유권자 행렬 투표용지 훼손·촬영 '눈살'

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일인 13일 전국 투표소에서는 소신을 담은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. 자식의 부축을 받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면서도 설레는 표정을 숨기지 못한 여든 살 넘은 할머니부터 '2030' 젊은 유권자까지 세대를 막론하고 부지런한 유권자들은 일찌감치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. 하지만 경기도 내 곳곳에서 투표인

들이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표 참관인들과 승강이를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.

○...종로구 종로 1~4가동 제1투표소인 교동초등학교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(37)씨는 "오늘 쉬는 날이라고 어쩔만 친구들과 오랜만에 놀았더니 아직도 피곤하다"며 "종일 늘어질 계획인데 눈을 뜬 김에 투표를 하러 왔고 다시 침대로 직행하려 한다"고 말했다.

부모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대학생 이새롬(24)씨는 초등학교 입구에서 다 같이 찍은 인증샷을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

에 올렸다. 이씨는 "아직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학교에 공부하러 가야 한다"며 울상을 짓기도 했다.

○...종로구 효제초등학교(종로 5·6가제 1·2투표소)에서 만난 김옥순(89) 할머니는 흰 면장갑을 낀 손으로 지팡이를 짚어 가며 투표소까지 걸어와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. 김 할머니는 "큰아들이 1950년생인데 셋째까지 모두 이 학교(효제초)를 나왔다. 매년 여기에 와서 투표하고 있다"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.

○...이날 오전 8시 30분께 고양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

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가 투표 사무원에게 적발됐다. 이 유권자는 해당 투표용지를 '투표용지 공개'로 처리하자 부당하다며 투표함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.

앞서 오전 8시께는 오산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인이 기표소에 들어가기 전 투표소를 사진 촬영,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삭제했다.

○...투표용지 훼손도 곳곳에서 이어졌다. 평택시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8시 25분께 유권자가 교육감 투표용지 1장을 투표함에 넣지 않고 나가려는 것을 투표 사무원이 발견, 투표함에 넣을 것을 요구하자 "내 마음이야"라고 외치며 용지를 찢고 그대로 투표소를 나갔다.

/이법종·김현정기자 joker@metroseoul.co.kr